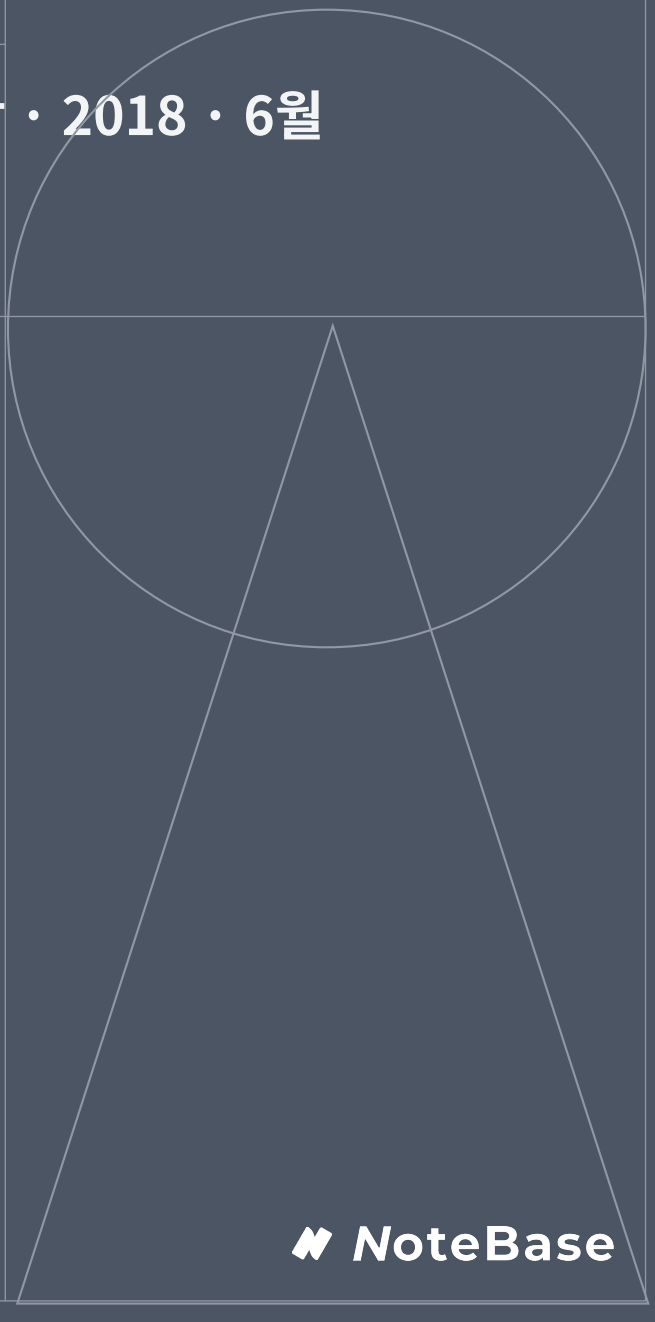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회계학 · 2018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회계학 · 2018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회계학 · 2018 · 6월

문 1. 자본총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는?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에 대하여 평가손실이 발생하다.

②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다.

③ 주주로부터 자산을 기부받다.

④ 자기주식을 재발행하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 이익준비금이 줄어든 만큼 자본금이 늘어난다. **자본 내부의 항목만 바뀌므로** 자본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자본총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다. 각 거래가 순자산을 바꾸는지, 자본 내부의 구성만 바꾸는지를 기준으로 비교한다.

① 자본총액 감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은 비용으로 인식되어 당기순이익을 줄인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감소하고 부채는 변하지 않으므로, **순자산과 자본총액이 감소**한다.

② 자본총액 불변: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속하는 자본 항목이다. 이를 자본금으로 전입하면 이익준비금이 감소하고 자본금이 같은 금액만큼 증가한다. **자본 항목 사이의 대체**일 뿐 자산과 부채가 변하지 않으므로 자본총액은 그대로이다.

③ 자본총액 증가: 주주로부터 자산을 기부받으면 대가를 지급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지 않고 자산이 증가한다. 따라서 **순자산이 증가**하여 자본총액도 증가한다.

④ 자본총액 증가: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니라 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다. 이를 재발행하면 현금 등 자산이 유입되고 자기주식의 차감액이 제거된다. 재발행 대가와 자기주식 장부금액의 차이도 자본 안에서 처리되므로, 자본총액은 **재발행 대가만큼 증가**한다.

이처럼 자본총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는 자본 내부에서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②이다.

NoteBase

문 2. (주)서울은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운반구(장부금액 ₩50,000, 공정가치 ₩60,000)와 (주)한성의 차량운반구(장부금액 ₩65,000, 공정가치 ₩70,000)를 교환하였다. 교환 시 (주)서울은 현금 ₩15,000을 (주)한성에 추가로 지급하였다. 동 자산의 교환 시 (주)서울이 인식할 자산처분손익은? (단, 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주)서울이 보유하던 차량운반구의 공정가치가 (주)한성의 차량운반구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① 손실 ₩10,000

② 손실 ₩5,000

③ 이익 ₩5,000

④ 이익 ₩1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상업적 실질이 있고 내주는 차량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므로, 처분손익은 **내주는 차량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구한다. 공정가치 60,000원에서 장부금액 50,000원을 뺀 10,000원이 처분이익이다.

계산 과정

1. 교환거래의 측정 기준: 상업적 실질이 있는 유형자산 교환에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이때 받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지 않으면 내주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사용한다. 이 문제에서는 **서울이 내주는 차량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고 했으므로 6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한성 차량의 공정가치 70,000원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2. 새 차량의 취득원가: 서울은 기존 차량과 현금 15,000원을 함께 지급했으므로, 새 차량의 취득원가는 60,000 + 15,000 = 75,000원이다. 추가 지급한 현금은 **새 차량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에 포함되며, 기존 차량의 처분손실로 처리하지 않는다. 한성 차량의 장부금액 65,000원은 한성이 기록한 금액이므로 서울의 처분손익 계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기존 차량의 처분손익: 서울이 내주는 차량은 공정가치 60,000원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고, 장부에서 기존 차량의 장부금액 50,000원을 제거한다. 따라서 처분손익은 60,000 − 50,000 = 10,000원이다.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크므로 처분이익**이 발생한다.

처분이익 10,000원은 ④의 '이익 ₩10,000'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3. (주)서울이 보고한 2018년도의 당기순이익은 ₩300,000이다. <보기>는 당기 현금흐름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이다. (주)서울의 2018년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보기>

항목	금액	항목	금액
금융자산처분이익	₩30,000	감각상각비	₩40,000
매출채권 순증가	₩20,000	매입채무 증가	₩3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	유형자산손상차손	₩10,000
매출채권손상차손	₩15,500	기계장치 취득	₩50,000

① ₩220,000

② ₩260,000

③ ₩270,000

④ ₩28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매출채권 순증가액은 손상차손이 반영된 **순장부금액의 증가액**이므로 매출채권손상차손을 다시 더하지 않는다. 당기순이익에 나머지 비현금 손익과 영업채권·채무 변동을 조정하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8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당기순이익 300,000원은 현금의 수입·지출 시점과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 금액이다. 간접법에서는 여기에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손익, 투자·재무활동 관련 손익,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을 조정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구한다.

비현금 비용: 감가상각비 40,000원과 유형자산손상차손 10,000원은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켰지만 **그 비용 인식 자체로 현금이 유출되지는 않았으므로** 더한다. 가산액은 40,000 + 10,000 = 50,000원이다.

처분이익: 금융자산처분이익 30,000원과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원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으나 관련 처분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에 속한다. 따라서 **영업활동에서 제외하기 위해 처분이익을 차감**한다. 차감액은 30,000 + 50,000 = 80,000원이며, 이는 처분대금 자체를 뜻하지 않는다.

매출채권 순증가: 20,000원은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매출채권 순장부금액의 증가액이므로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한다. 매출채권손상차손 15,500원은 당기순이익과 매출채권 순장부금액을 함께 감소시킨다. 따라서 순장부금액의 증감을 차감하는 과정에서 손상차손의 영향도 함께 제거되므로 **손상차손을 별도로 가산하면 중복조정**이 된다.

매입채무 증가: 30,000원은 영업 관련 대금 중 아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의 증가이므로 더한다. 영업부채가 증가하면 그만큼 현금지급이 뒤로 미루어져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커진다.

기계장치 취득: 50,000원은 **투자활동**에 해당한다.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자산으로 인식되므로 취득액 자체가 당기순이익에서 비용으로 차감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흐름 계산에서 이 금액을 빼지 않는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300,000 + 50,000 − 80,000 − 20,000 + 30,000 = 280,000원이다. 이는 ④의 280,000원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표준원가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은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재료원가로 ₩200을 설정하였으며 단위당 표준 직접재료원가의 산정 내역과 2018년 3월 동안 제품을 생산하면서 집계한 자료는 <보기>와 같다. ㈜서울의 직접재료원가 변동예산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직접재료 표준원가 산정내역	실제 제품생산관련 자료
• 제품 단위당 직접재료 표준사용량: 10kg • 직접재료의 표준가격: ₩20/kg	• 제품 생산량: 100단위 • 실제 직접재료 사용량: 1,050kg • 실제 직접재료원가: ₩20,600

① 총변동예산 차이는 ₩600(불리한 차이)이다.

② 가격 차이는 ₩400(유리한 차이)이다.

③ 능률 차이는 ₩1,000(불리한 차이)이다.

④ 총변동예산 차이는 ₩600(유리한 차이)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실제 생산량 100단위의 변동예산은 20,000원인데 실제 직접재료원가는 20,600원이므로, 600원은 **불리한 차이**이다. ④의 '유리한 차이'는 원가가 예산보다 더 발생했다는 사실과 반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변동예산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되는 표준원가이다. 제품 100단위를 생산할 때 허용되는 표준사용량은 100 × 10 = 1,000kg이고, 직접재료원가의 변동예산은 100 × 200 = 20,000원이다. 원가는 비교기준보다 더 발생하면 불리한 차이, 덜 발생하면 유리한 차이로 판단한다.

① O: 총변동예산 차이는 실제 직접재료원가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되는 표준원가**의 차이이다. 20,600 − 20,000 = 600원이므로, 예산보다 원가가 600원 더 발생한 불리한 차이이다.

② O: 가격 차이는 사용량을 실제사용량 1,050kg으로 고정하여 가격의 영향만 구한다. 이 수량을 표준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은 1,050 × 20 = 21,000원이다. 실제원가 20,600원은 이보다 400원 적으므로, **표준가격보다 싸게 사용한 효과**인 400원의 유리한 차이이다.

③ O: 능률 차이는 실제사용량과 실제 생산량에 허용되는 표준사용량의 차이를 표준가격으로 평가한다. 실제로는 표준사용량 1,000kg보다 **50kg을 초과 사용**하였으므로, (1,050 − 1,000) × 20 = 1,000원의 불리한 차이이다.

④ X: 가격에서 400원을 절감했지만 초과사용으로 1,000원의 원가가 더 발생하여, 합계로는 원가가 600원 증가하였다. 따라서 총변동예산 차이의 금액은 600원이지만, '유리한 차이'를 **'불리한 차이'**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5. (주)서울은 2017년 1월 1일에 무형자산인 특허권을 ₩5,000,000에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허권의 잔존가치는 없으며, 내용연수는 5년, 정액법을 사용하여 상각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허권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여 (주)서울은 매 회계연도 말에 공정가치로 재평가하기로 하였다. 단,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 각 연도별 공정가치는 <보기>와 같을 때, 이 특허권과 관련하여 (주)서울의 2018년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될 당기손익과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재평가잉여금은?

<보기>

2017. 12. 31.	2018. 12. 31.
₩3,600,000	₩3,100,000

① 손실: ₩600,000 재평가잉여금: ₩0

② 손실: ₩500,000 재평가잉여금: ₩0

③ 손실: ₩900,000 재평가잉여금: ₩400,000

④ 이익: ₩300,000 재평가잉여금: ₩30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2018년 재평가증가액 400,000원은 전기에 인식한 재평가손실을 되돌리는 금액이므로 **당기이익으로 환입**한다. 상각비 900,000원에서 이 환입액을 차감하면 당기손실은 500,000원이며, 재평가잉여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17년 말 장부금액과 재평가손실: 잔존가치가 없고 정액법을 적용하므로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5년에 걸쳐 상각한다. 2017년 상각비는 $\frac{5,000,000}{5} = 1,000,000$원이다.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은 5,000,000 − 1,000,000 = 4,000,000원이다. 보기의 2017년 말 공정가치가 3,600,000원이므로 재평가손실 400,000원을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재평가 후 장부금액은 3,600,000원이며, 재평가잉여금은 없다.

2. 2018년 상각비: 재평가 후에는 **재평가된 장부금액을 잔여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2017년에 1년을 사용했으므로 2018년 초 잔여내용연수는 4년이다. 따라서 2018년 상각비는 $\frac{3,600,000}{4} = 900,000$원이며, 2018년 말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은 3,600,000 − 900,000 = 2,700,000원이다.

3. 2018년 말 재평가: 보기의 2018년 말 공정가치는 3,100,000원이므로 재평가증가액은 3,100,000 − 2,700,000 = 400,000원이다. 재평가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재평가잉여금에 누적하지만, **동일 자산에 대해 과거 당기손실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을 환입하는 부분**은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이번 증가액 400,000원 전액이 2017년 재평가손실 400,000원의 환입에 해당하므로 재평가잉여금으로 누적할 금액은 없다.

4. 2018년 보고금액: 상각비 900,000원은 당기비용이고 재평가손실 환입액 400,000원은 당기이익이다. 따라서 이 특허권과 관련한 당기손익은 400,000 − 900,000 = −500,000원, 즉 당기손실 500,000원이다. 2018년 말 재평가잉여금은 0원이므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6.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식이란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② 자산의 현행원가는 동일하거나 또는 동등한 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취득할 경우 그 대가로 지불하여야 할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③ 부채의 이행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④ 측정이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이며 특정 측정기준의 선택과정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측정은 재무제표에 반영할 화폐금액을 정하는 과정이므로 **특정 측정기준의 선택을 포함한다**. 역사적 원가나 현행원가 등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측정금액이 달라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인식은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자산·부채 등 해당 항목을 명칭과 화폐금액으로 표시하고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의 합계에 포함한다는 뜻이다.

② O: 자산의 현행원가는 동일하거나 동등한 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취득할 때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과거 취득 당시 지급한 금액을 출발점으로 하는 역사적 원가와 달리, 지금 같은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③ O: 이 문항의 이행가치는 종전 개념체계의 'settlement value'를 뜻한다.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미래 지급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할인하는 현재가치와 구별된다. 개정 개념체계에서 사용하는 이행가치인 'fulfilment value'는 부채 이행에 필요한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자원의 현재가치이므로, 이 문항의 종전 용어와 구분해야 한다.

④ X: 측정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평가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 금액을 정하려면 역사적 원가·현행원가 등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정해야 하므로, **특정 측정기준의 선택과정을 포함한다**. 선지의 '포함하지는 않는다'를 '포함한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7.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투자부동산인 토지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투자부동산인 건물은 원가모형을 적용할 수도 있다.

②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③ 자가사용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대체하는 시점까지 그 부동산을 감가상각하고, 발생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④ 공정가치모형을 최초 적용할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경우와 같이 예외 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기간의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지 않는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자가사용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의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해도 **용도변경일까지는 유형자산 회계처리**를 적용한다. 따라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그 시점까지 감가상각하고, 발생한 손상차손도 인식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투자부동산에 동일한 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토지인지 건물인지에 따라 임의로 모형을 달리 선택할 수는 없다.

② X: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의 후속 공정가치 변동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선지의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자가사용부동산은 기업이 생산·공급이나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투자부동산으로 용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유형자산 회계처리를 적용한다. 따라서 **대체하는 시점까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감가상각하고, 발생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장부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확정한 장부금액과 대체일 공정가치의 차이는 유형자산 재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④ X: 투자부동산을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 변경이므로 **소급적용이 원칙**이다. 새 모형을 과거부터 적용한 것처럼 비교 표시되는 과거 기간의 금액과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자본을 조정한다.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 최초 적용에 관한 소급적용 예외를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 변경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소급적용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에는 적용 한계가 있다.

NoteBase

문 8. (주)서울의 2018년 초와 2018년 말의 총자산은 각각 ₩150,000과 ₩270,000이며, 2018년 초와 2018년 말의 총부채는 각각 ₩80,000과 ₩120,000이다. (주)서울은 2018년 중 ₩50,000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현금배당 ₩10,000과 주식배당 ₩7,000을 실시하였다. (주)서울의 2018년 기타포괄손익이 ₩10,000인 경우 2018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① ₩30,000

② ₩37,000

③ ₩40,000

④ ₩47,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자본 증가액에서 유상증자와 현금배당의 영향을 제거하면 포괄손익은 40,000원이다. 여기서 **기타포괄손익 10,000원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은 30,000원이며, **주식배당은 자본총계를 바꾸지 않는다**.

계산 과정

기초·기말 자본: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2018년 초 자본은 150,000 − 80,000 = 70,000원이고, 연말 자본은 270,000 − 120,000 = 150,000원이다. 따라서 한 해 동안 자본은 150,000 − 70,000 = 80,000원 증가하였다.

소유주와의 거래: 유상증자 50,000원은 주주가 출자하여 자본이 늘어난 금액이고, 현금배당 10,000원은 주주에게 분배하여 자본이 줄어든 금액이다. 두 거래는 손익이 아니므로 자본 변동에서 따로 구분한다. 주식배당 7,000원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자본 내부의 대체**이므로 자본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포괄손익: 자본 증가액에는 포괄손익과 소유주와의 거래가 함께 반영되어 있다. 포괄손익을 구하려면 자본 증가액에서 **유상증자액을 빼고 현금배당액을 더한다**. 따라서 2018년 포괄손익은 80,000 − 50,000 + 10,000 = 40,000원이다. 이는 주주의 출자·분배를 제외한 자본 증가액이다.

당기순이익: 포괄손익은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합계이다. 따라서 포괄손익 40,000원에서 **기타포괄손익 10,000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40,000 − 10,000 = 30,000원이다. 이는 ①의 30,000원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9. (주)서울의 기초 매출채권 잔액은 ₩50,000이고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40,000이다. 기중에 회수한 매출채권은 ₩60,000이고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은 ₩30,000이라면 기중에 발생한 외상판매액은?

① ₩40,000

② ₩80,000

③ ₩90,000

④ ₩10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매출채권은 외상판매로 증가하고, **회수와 대손확정으로 감소**한다. 기초·기말 잔액의 차이에 두 감소액을 반영하면 기중 외상판매액은 80,000원이다.

계산 과정

매출채권은 외상으로 판매하여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다. 외상판매액은 매출채권을 늘리고, 회수액과 대손확정액은 매출채권을 줄이므로 **기초 잔액에 기중 증가액을 더하고 감소액을 빼면 기말 잔액**이 된다.

기중 감소액: 회수한 60,000원은 현금을 받아 매출채권이 줄어든 금액이고, 대손이 확정된 30,000원은 회수할 수 없어 매출채권에서 제거한 금액이다. 따라서 매출채권의 기중 감소액은 60,000 + 30,000 = 90,000원이다.

외상판매액 계산: 기초 매출채권 50,000원과 기중 외상판매액을 합한 금액 중 90,000원이 감소하고, 기말에 40,000원이 남았다. 따라서 기중 외상판매액은 40,000 + 90,000 − 50,000 = 80,000원으로, ②의 금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0. <보기>는 ㈜서울과 ㈜한성의 매입 및 매출에 관련된 자료이다. (가)와 (나)의 금액은? (단, 재고감모손실 및 재고평가손실은 없다고 가정한다.)

<보기>

	기초재고액	당기매입액	기말재고액	매출원가
㈜서울	₩100,000	₩240,000	(가)	₩280,000
㈜한성	(나)	₩220,000	₩180,000	₩280,000

① (가): ₩60,000, (나): ₩240,000

② (가): ₩340,000, (나): ₩240,000

③ (가): ₩60,000, (나): ₩320,000

④ (가): ₩340,000, (나): ₩32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재고감모손실과 재고평가손실이 없으면 판매가능상품원가는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의 합**이다. 이 관계에 따라 ㈜서울의 기말재고액 (가)는 60,000원, ㈜한성의 기초재고액 (나)는 240,000원이다.

계산 과정

재고감모손실과 재고평가손실이 없으므로, 기초재고액에 당기매입액을 더한 판매가능상품원가는 판매된 상품의 원가인 매출원가와 남은 상품의 원가인 기말재고액으로 나뉜다.

(가) ㈜서울의 기말재고액: 기초재고액 100,000원과 당기매입액 240,000원을 합하면 판매가능상품원가는 340,000원이다. 여기서 **판매된 상품의 원가 280,000원을 차감**하면 남은 재고의 금액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는 340,000 − 280,000 = 60,000원이다.

(나) ㈜한성의 기초재고액: 매출원가 280,000원과 기말재고액 180,000원을 합하면 판매가능상품원가는 460,000원이다. 이 중 당기매입액이 220,000원이므로 **당기에 매입하기 전부터 보유한 재고**는 나머지 금액이다. 따라서 (나)는 460,000 − 220,000 = 240,000원이다.

따라서 (가)는 60,000원, (나)는 240,000원으로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1. (주)서울은 12월 말 결산법인이며 <보기>는 기말수정사항이다. 기말수정분개가 (주)서울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법인세는 무시한다.)

<보기>
· 3월 1일에 1년간 보험료 ₩3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전액 보험료로 기록하였다.
· 4월 1일에 소모품 ₩300,000을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전액 소모품으로 기록하였다. 기말에 실시한 결과 소모품은 ₩70,000으로 확인되었다.
· 5월 1일에 1년간 건물 임대료로 ₩300,000을 수취하면서 전액 임대료수익으로 기록하였다.

① 자산이 ₩180,000만큼 증가한다.
② 부채가 ₩100,000만큼 감소한다.
③ 비용이 ₩180,000만큼 증가한다.
④ 당기순이익이 ₩80,000만큼 감소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이미 비용으로 기록한 보험료 중 차기분 50,000원은 비용에서 빼고, 사용한 소모품 230,000원은 비용에 더한다. 따라서 기말수정으로 **비용은 순액으로 180,000원 증가**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기말수정분개는 현금의 지급·수취 시점이 아니라 당기에 사용하거나 제공한 기간에 맞추어 비용과 수익을 조정한다. 이 문제는 수정 후 잔액이 아니라 수정분개로 인한 증감을 묻는다.

보험료: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0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1년분 중 다음 해 1~2월의 2개월분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보험료이다. 선급보험료는 $300,000 \times \frac{2}{12} = 50,000$원이다. 지급 시 전액을 비용으로 기록했으므로 **미경과분을 자산으로 돌린다**. 수정분개는 (차) 선급보험료 50,000원 / (대) 보험료 50,000원이며, 자산이 50,000원 증가하고 비용이 50,000원 감소한다.

소모품: 구입 시 300,000원 전액을 자산으로 기록했고 기말에 70,000원이 남아 있으므로, 당기에 사용한 금액은 300,000 - 70,000 = 230,000원이다. **사용한 금액만 비용으로 전환**한다. 수정분개는 (차) 소모품비 230,000원 / (대) 소모품 230,000원이며, 자산이 230,000원 감소하고 비용이 230,000원 증가한다.

임대료: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8개월분은 당기 수익이고, 다음 해 1~4월의 4개월분은 아직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금액이다. 선수임대료는 $300,000 \times \frac{4}{12} = 100,000$원이다. 수취 시 전액을 수익으로 기록했으므로 **미경과분을 부채로 돌린다**. 수정분개는 (차) 임대료수익 100,000원 / (대) 선수임대료 100,000원이며, 수익이 100,000원 감소하고 부채가 100,000원 증가한다.

전체 영향: 자산은 50,000 - 230,000 = -180,000원으로 180,000원 감소하고, 부채는 100,000원 증가한다. 비용은 -50,000 + 230,000 = 180,000원 증가한다. 법인세를 무시하면 당기순이익의 증감은 수익 증감에서 비용 증감을 뺀 값이므로, -100,000 - 180,000 = -280,000원으로 280,000원 감소한다. 따라서 비용이 180,000원 증가한다는 ③의 내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2.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서울은 20X1년 초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500,000에 구입하였다. 20X1년 말 토지의 공정가치는 ₩600,000이었으며, 20X2년 말의 공정가치는 ₩550,000이었다. 특히 20X2년 말에는 토지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각각 ₩450,000과 ₩430,000으로 토지에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토지와 관련하여 ㈜서울이 20X2년도에 손상차손(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① ₩50,000

② ₩100,000

③ ₩150,000

④ ₩20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재평가된 토지의 손상차손은 **남아 있는 재평가잉여금을 먼저 차감**하고 초과분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0X2년 말 회수가능액은 450,000원이며, 재평가 후 손상차손 100,000원에서 재평가잉여금 잔액 50,000원을 차감한 50,000원이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20X1년 말 재평가: 토지의 취득원가는 500,000원이고 공정가치는 600,000원이므로 재평가증가액은 600,000 − 500,000 = 100,000원이다. 이 증가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재평가잉여금에 누적한다.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으므로 재평가 후 장부금액은 600,000원이다.

20X2년 말 재평가: 공정가치가 550,000원으로 하락하였으므로 재평가감소액은 600,000 − 550,000 = 50,000원이다. 동일한 토지의 재평가잉여금이 있으므로 이 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재평가잉여금을 차감**한다. 이에 따라 장부금액은 550,000원, 재평가잉여금 잔액은 100,000 − 50,000 = 50,000원이 된다.

회수가능액: 자산을 처분하거나 계속 사용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하므로,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순공정가치 450,000원이 사용가치 430,000원보다 크므로 회수가능액은 450,000원이다. 공정가치 550,000원과 순공정가치 450,000원을 구별해야 한다.

손상차손의 배분: 재평가 후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까지 낮춰야 하므로 손상차손은 550,000 − 450,000 = 100,000원이다. 이 중 남아 있는 재평가잉여금 50,000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차감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20X2년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손상차손은 100,000 − 50,000 = 50,000원으로,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3.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미지급금
ㄴ. 사채
ㄷ. 미지급법인세
ㄹ. 차입금
ㅁ. 선수금
ㅂ. 매입채무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ㄹ, ㅂ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미지급법인세는 계약이 아닌 **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이고, 선수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재화·용역을 제공할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보기의 항목은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자산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금융부채 여부를 구분한다. 현금으로 결제하더라도 계약에서 발생한 의무가 아니면 금융부채가 아니며, 계약에서 발생했더라도 재화·용역을 제공하여 이행하는 의무는 금융부채가 아니다.

ㄱ. 미지급금 — 금융부채: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생긴 미지급금은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ㄴ. 사채 — 금융부채: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면서 부담하는 채무이다.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ㄷ. 미지급법인세 — 비금융부채: 납부할 법인세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다. 현금으로 납부하지만 당사자 간 계약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차입금 — 금융부채: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돈을 약정에 따라 상환할 의무이다. 차입계약에 근거하여 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ㅁ. 선수금 — 비금융부채: 재화·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대금을 미리 받아 생긴 부채이다. 통상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약정한 재화·용역을 제공**하여 의무를 이행하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ㅂ. 매입채무 — 금융부채: 상품이나 원재료 등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아직 지급하지 않은 대금이다. 매입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ㄷ. 미지급법인세와 ㅁ. 선수금이며, 이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4. 2018년 초에 (주)서울은 (주)한성을 흡수합병하였다. 취득일 현재 (주)한성이 보유한 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각각 ₩100,000과 ₩120,000이고,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각각 ₩40,000과 ₩70,000이다. 합병 과정에서 (주)서울은 이전대가로 현금 ₩50,000과 (주)서울의 주식 (액면금액 ₩20,000, 공정가치 ₩30,000)을 지급하였다. 이 합병으로 인해 (주)서울이 인식할 영업권 금액은?

① ₩0

② ₩10,000

③ ₩20,000

④ ₩3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 이전대가 80,000원에서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50,000원을 빼면, 영업권은 3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이전대가 계산: 합병을 위해 지급한 현금과 주식의 취득일 공정가치를 합산한다. 주식은 **액면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인 30,000원으로 측정하므로, 이전대가는 50,000 + 30,000 = 80,000원이다.

2. 취득한 순자산 계산: 취득한 식별가능 자산에서 인수한 부채를 차감하되, 각각 **취득일 공정가치**를 적용한다. 따라서 순자산은 120,000 − 70,000 = 50,000원이다.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인 100,000원과 40,000원은 이 계산에 사용하지 않는다.

3. 영업권 계산: 이전대가가 취득한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영업권은 80,000 − 50,000 = 30,000원으로,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5. (주)서울은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재료 A와 재료 B를 사용하고 있다. 재료 A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재료 B는 공정의 60% 시점에서 일시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 제품제조활동과 관련한 자료가 <보기>와 같을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완성품환산량은?

<보기>

	물량
기초재공품	300개(완성도 20%)
당기착수	1,500개
당기완수	1,300개
기말재공품	500개(완성도 50%)

① 재료원가 A: 1,500개, 재료원가 B: 1,300개, 가공원가: 1,490개

② 재료원가 A: 1,500개, 재료원가 B: 1,550개, 가공원가: 1,490개

③ 재료원가 A: 1,800개, 재료원가 B: 1,300개, 가공원가: 1,550개

④ 재료원가 A: 1,800개, 재료원가 B: 1,550개, 가공원가: 1,550개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선입선출법은 **당기에 수행한 작업만** 완성품환산량에 반영한다. 재료 B는 완성도 20%인 기초재공품에는 당기에 전량 투입되지만, 완성도 50%인 기말재공품에는 아직 투입되지 않는다. 완성품환산량은 재료 A 1,500개, 재료 B 1,300개, 가공원가 1,490개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완성품환산량은 실제 투입된 재료나 가공 작업을 완성품 수량으로 환산한 것이다.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공품에 전기까지 수행한 작업은 제외하고, 기초재공품을 완성하기 위한 당기 작업, 당기 착수·완성품의 작업, 기말재공품의 당기 작업을 합한다. 기초재공품 300개가 먼저 완성되므로, 당기 완성품 1,300개 중 당기에 착수하여 완성한 수량은 1,300 − 300 = 1,000개이다. 물량도 기초 300 + 당기 착수 1,500 = 당기 완성 1,300 + 기말 500 = 1,800개로 일치한다.

재료 A: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므로 **기초재공품에는 전기에 이미 투입**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재공품을 완성할 때 당기에 추가할 재료 A는 없다. 당기 착수·완성품 1,000개와 기말재공품 500개에는 당기에 전량 투입되므로, 완성품환산량은 0 + 1,000 + 500 = 1,500개이다.

재료 B: 공정의 60% 시점에서 일시에 전량 투입된다. 기초재공품은 완성도가 20%이므로 전기에는 재료 B가 투입되지 않았고, 당기에 완성하면서 300개 모두에 투입된다. 당기 착수·완성품 1,000개에도 전량 투입되지만, **기말재공품은 완성도 50%로 투입 시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완성품환산량은 300 + 1,000 + 0 = 1,300개이다.

가공원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완성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기초재공품은 전기에 20%가 가공되었으므로 **당기에는 남은 80%만** 반영하여 300 × (100% − 20%) = 240개로 환산한다. 당기 착수·완성품은 1,000개, 기말재공품은 500 × 50% = 250개이므로,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240 + 1,000 + 250 = 1,490개이다.

따라서 재료 A 1,500개, 재료 B 1,300개, 가공원가 1,490개로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6.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②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자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로서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경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된다.

③ 재정운영표의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고정순자산과 일반순자산의 2가지로 분류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는 순자산의 분류에서 **특정순자산**을 빠뜨렸다. 순자산은 기능과 용도에 따라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일반순자산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재무제표를 만든다. 이때 **내부거래는 상계**하여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주고받은 거래가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② O: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은 현금흐름표가 한 회계연도에 현금이 어디에서 들어와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여주며, 이를 경상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으로 나누도록 한다. 제36조에 따르면 경상활동은 행정서비스 관련 활동 중 나머지 두 활동에 속하지 않는 거래이고, 투자활동은 자금의 융자·회수나 장기투자증권·시설 등의 취득·처분이다. 재무활동은 **차입·상환 및 지방채 발행·상환** 등 자금 조달과 관련된 활동이다.

③ O: 같은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익과 비용은 발생한 원천을 구별해 분류한다. 각 항목을 따로 표시할지 다른 항목에 합쳐 표시할지는 중요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금액과 질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발생원천별 분류 의무와 중요성에 따른 표시 방법의 선택은 양립한다.

④ X: 같은 규칙 제25조제1항의 순자산 분류는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일반순자산의 세 가지**이다. 제2항의 고정순자산은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무형자산에 투자한 금액에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차입금·지방채증권 등을 차감한 부분이다. 제3항의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용 재원이나 적립성기금 원금처럼 용도가 정해진 재원에 대응하는 부분이고, 제4항의 일반순자산은 전체 순자산에서 앞의 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이다. 선지의 '고정순자산과 일반순자산의 2가지'는 특정순자산을 포함한 세 가지 분류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7. (주)서울은 2018년 12월 말에 주당 액면금액 ₩5,000인 보통주 1,000주를 주당 ₩10,000에 발행(유상증자)하였으며, 주식인쇄비 등 주식발행과 관련된 비용이 ₩1,000,000 발생하였다. 유상증자 직전에 (주)서울의 자본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의 미상각잔액이 ₩1,500,000 존재하였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주)서울이 2018년 말에 보고할 주식발행초과금은?

① ₩2,500,000

② ₩4,000,000

③ ₩9,000,000

④ ₩10,00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5,000,000원에서 **주식발행비용과 기존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다. 따라서 기말에 보고할 주식발행초과금은 2,50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액면 초과 납입액: 발행대금은 10,000원 × 1,000주 = 10,000,000원이고, 자본금 증가액은 5,000원 × 1,000주 = 5,000,000원이다.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금액**이 주식발행초과금이므로, 조정 전 금액은 10,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이다.

2. 주식발행비용 차감: 주식인쇄비 등 주식발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본에서 차감**한다. 이 문제에서는 주식발행초과금에서 1,000,000원을 차감하므로, 비용 반영 후 금액은 5,000,000원 − 1,000,000원 = 4,000,000원이다.

3. 기존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계: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액면금액보다 낮게 주식을 발행하면서 생긴 자본 차감 항목이다. 새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은 **기존 주식할인발행차금 미상각잔액과 우선 상계**한다. 따라서 2018년 말에 보고할 주식발행초과금은 4,000,000원 − 1,500,000원 = 2,500,000원이며,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8. (주)서울의 20X1년 기초와 기말 재고자산은 각각 ₩200,000과 ₩350,000이며, 20X1년 기초와 기말 매입채무는 각각 ₩50,000과 ₩80,000이다. (주)서울의 20X1년도 재고자산 매입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이 ₩250,000일 경우, (주)서울의 20X1년도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의 감모 및 평가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① ₩130,000

② ₩200,000

③ ₩250,000

④ ₩37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매입채무가 30,000원 증가했으므로 당기매입액은 현금유출액보다 **30,000원 많은 280,000원**이다.
기초재고에 당기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빼면 매출원가는 13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당기매입액 계산: 매입채무는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다. 기말 매입채무가 기초보다 80,000 − 50,000 = 30,000원 증가했으므로, 당기에 매입한 금액은 실제 지급한 현금보다 그만큼 크다. 따라서 현금유출액에 **매입채무 증가액을 더하여** 당기매입액을 구한다.
당기매입액 = 250,000 + 80,000 − 50,000 = 280,000원

2. 매출원가 계산: 기초재고 200,000원과 당기매입액 280,000원을 합한 480,000원은 당기에 판매할 수 있었던 재고자산의 원가이다. 감모 및 평가손실이 없으므로 이 금액에서 **판매되지 않고 남은 기말재고** 350,000원을 빼면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인 매출원가가 된다.
매출원가 = 200,000 + 280,000 − 350,000 = 130,000원

계산된 매출원가 130,000원은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만 배부하는 방법이다.

② 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부분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으로 보조부문의 배부순서가 달라지면 배부 후의 결과가 달라진다.

③ 이중배부율법은 보조부문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총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다.

④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여 각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과 다른 보조부문에도 배부하는 방법으로, 가장 논리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법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한 방향으로만 반영**한다. 이미 배부를 마친 부문에는 다른 보조부문의 원가를 다시 배부하지 않으므로, 배부순서에 따라 제조부문에 배부되는 원가가 달라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무시하고 제조부문에만 원가를 배부하는 것은 **직접배부법**이다.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끼리 주고받는 용역을 모두 반영하여 각 부문의 배부대상 원가를 구하므로, 선지의 설명과 반대이다.

② O: 단계배부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과 아직 배부하지 않은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한다. **배부를 마친 부문에는 다시 배부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부문 간 용역수수관계를 부분적으로만 고려한다. 예를 들어 보조부문 A를 먼저 배부하면 A의 원가 일부가 B로 넘어가지만, 나중에 B를 배부할 때는 A로 원가를 돌려보내지 않는다. 순서를 바꾸면 반영되는 용역의 방향이 달라져 제조부문별 배부액도 달라진다.

③ X: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배부기준과 배부율로 총원가를 배부하는 것은 **단일배부율법**이다. 이중배부율법은 보조부문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나누고, 각각의 원가행태에 맞게 별도의 배부율을 적용한다.

④ X: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반영하는 것은 **상호배부법**이다. 다른 보조부문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원가까지 반영하므로 세 방법 중 이론적으로 가장 정확한 배부방법이다. 직접배부법은 이러한 상호 용역을 무시하고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만 배부하는 간편한 방법이다.

NoteBase

문 20. 12월 말 결산법인인 ㈜서울의 기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0주이다. ㈜서울은 2018년 4월 1일에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20,000주를 발행하였고, 10월 1일에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12,000주를 공정가치로 발행하였다. 당기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필요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는?

① 100,000주

② 118,000주

③ 123,000주

④ 132,000주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무상증자 20,000주는 **연초부터 유통된 것으로 조정**하고, 공정가치로 유상증자한 12,000주는 **발행 후 3개월만 가중**한다. 이에 따른 당기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는 123,000주이다.

계산 과정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는 기본주당이익의 분모로, 각 주식수를 당기 중 유통된 기간에 따라 가중하여 계산한다. 다만 무상증자는 회사로 유입되는 자원의 증가 없이 주식수만 늘어나므로, 발행 전 주식수도 무상증자 후의 기준으로 조정한다.

1. 무상증자 반영: 4월 1일의 무상증자로 기초 100,000주는 120,000주가 된다. 무상증자는 **발행일 이후만 기간 가중하지 않고 연초부터 소급하여 반영**하므로, 이 120,000주는 당기 12개월 전체의 주식수에 포함한다.

2. 유상증자 반영: 10월 1일에 공정가치로 발행한 12,000주는 회사로 자원이 유입되면서 증가한 주식이다. 따라서 **발행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만 반영한다. 이 주식이 연간 가중평균에 기여하는 주식수는 $12{,}000 \times \frac{3}{12} = 3{,}000$주이다.

3. 합산: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는 120,000 + 3,000 = 123,000주이다. 이는 ③의 123,000주에 해당한다.

NoteBase